

시론

창직과 창업으로 창창한 광주



김 현 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경제일자리재단은 2025년을 광주 일자리의 해로 삼고 기존 일자리 사업을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재정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일자리는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을 부여하며,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통적 일자리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창직(創職)과 창업(創業)은 기존 취업 중심 일자리 사업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창직과 창업은 개인이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 속에서 일자리와 복지의 연계성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도 창창한 광주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 형태가 감소하거나 변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이게 됐다. 창직은 이러

한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직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 AI 프롬프터, 데이터 분석가 등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직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경제 속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일자리 창출 방식과 달리 개인의 기술과 역량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며, 안정적인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복지에 기여한다.

디지털 기술은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기회를 일자리로 연결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크리에이터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하며 디지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공동체는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해 사회적 통합을 강화한다. 창직을 통해 형성된 디지털 커뮤니티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며,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복지적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소상공인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 채널을 구축, 판매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상공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상품화하고 디지털화와 브랜드화가 결

합되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향후 복합소평물 논의가 소비자 소평편의 증대의 관점 못지않게 새로운 유통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 디지털 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커머스 산업 중심적 관점의 논의도 필요한 이유이다.

지역에서 디지털 창작자들이 화상 회의와 온라인 협업을 통해 대도시나 다른 나라 기업들과 일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들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위계이션을 통해 단기적 일자리 관계 인구가 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직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창직과 창업은 중요한 디지털 뉴딜이며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 전환 속에서 창직과 창업은 경제적 안정, 심리적 만족, 사회적 통합, 건강과 웰빙을 아우르는 복지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적 관점에서의 해법이다.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존재의 이유가 아니다. 위기는 기회다. 민선8기 경기정호는 창업 성공률 높은 광주, 디지털 경제 수도 광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창창한 광주를 향해 가고 있다.

社說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 사태 책임도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일정이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이번에는 2단계 난구간이 발목을 잡았다. 전남대학교 후문 주변 7공구와 본촌산단을 통과하는 10공구가 그 곳으로 5차레나 유찰되면서 수의계약까지 추진했지만 역시 허사였다. 결국 광주시는 업체 선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7, 10공구는 도로가 좁고 지장물이나 주변 노후건물이 많아 민원 소지가 큰 난공사 지역으로 꼽힌다. 각각 1천516억원, 1천140억원으로 예정된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광주시는 보안설계를 마친 뒤 정부와 사업비 증액에 나설 계획이며,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을 목표로 한 2단계 개통이 2030년으로 1년 연장되는 상황이다.

앞선 데 덮친 격이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은 설계 변경과 공사비 부족 등 여러 장애요인이 겹쳐 2019년 9월 첫삽을 뜬 1단계(광주시청-광주역·17km)는 2023년으로, 2단계(광주역-시청·20km)는 2029년으로 각각 3년씩

공기가 늘어났다. 이번에 다시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교통 체증과 각종 사고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가림막과 통행로 차단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또한 더해질 것 같다. 코로나19를 견디고 나니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삼중고다.

광주시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으로 문제가 된 7공구는 기존의 개착이 아닌 터널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며 10공구는 지하에 하수박스가 있는 만큼 우회해 진행할 예정이다. 수차례 유찰이 반복되면서 우려가 컸지만 개통 지연 사태를 따지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 해도 시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장기공사로 인한 고충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공기를 줄여야 하는데 녹지도 없다. 2단계 총사업비는 1조3천288억원(국비 7천937억·시비 5천351억원)이다. 긴축구조 탓에 정부와 재협의를 순탄할지 의문이다. 광주시는 공사 단가의 조정 없이 입찰과 수의계약을 강행하면서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지방소멸 위기 추세 맞춰 정부 기금 대폭 확대돼야

전남도가 확보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4년 연속 최대 기록이다. 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89개소)와 관심 지역(18개소)에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내 16개 군이 기초 기금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전남연구원과 연계해 투자계획서 작성부터 PT발표 자료 등 컨설팅을 적극 지원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은 전남은 2000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등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 아래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과 유관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정책을 마련했다.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발굴하고, 2030년까지 1조 3천187억(도비 4천856억원) 수준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전632억원(광역 304억·기초 1천328억)이며, 4년 전체론 6천312억원(광역 1천400억·기초 4천912억)으로 고무적인 것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만원주택(1천호), 공공산후조리원(개소) 등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청년 정주 여건에 집중 투자했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전남부서인 '인구청년인민국'을 신설한 바 있다. 범국가적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총력 체제다.

인구소멸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시군과 상생 협력의 기반도 굳건해야 한다. 일각의 제안대로 지방소멸이 빨라지는 추세에 맞춰 정부도 대응기금을 대폭 늘려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역 위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지속 발전하는 전남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살고 싶은 전남, 활기 넘치는 전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금의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이번에 배정받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

기고



장 미 영

광주 남구 가족센터장

Pride and Prejudice(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이 그려낸 리지와 다이시의 사랑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에게 사랑받아 왔다. 그들이 사랑한 것이 18세기 영국의 결혼 문화일 리는 없다. 리지와 다이시가 어떻게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고 사랑을 쟁취해 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이 흥미로웠을 것이다. 500페이지가 넘는 장편이 쉬이 읽히는 것은 제인 오스틴의 문장력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소설이 가진 큰 힘은 오만과 편견이 진실성을 가리는 안타까움과 오만과 편견을 벗어나 진실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흥미로움이다.

통계청은 2023년 11월29일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은 1만7천428건으로 전체 혼인 중 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혼인의 유형은 외국인 아내가 68.8%로 비중이 가장 컸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전체 혼인 10건 중 1건

우리의 동반자 '다문화 가족'

은 다문화 혼인이었으며, 혼인 유형 역시 '외국인 며느리'가 다수를 차지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다문화 출생은 1만2천516명으로 2022년 전체 출생아 수의 5%였다. 43쪽의 세밀한 보고서는 놀랄만한 특별한 정보를 전하고 있지는 않다.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실을 숫자로 보여줬을 뿐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통째로 말하고 있다.

Amor Fati(운명을 사랑하라) 사실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운명이니까 받아들여라"로 이해한다. 능동적 허무주의를 주창하고, 철저한 초현실주의자였던 니체가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했을 리는 없다. 신을 죽이고 초인을 탄생시켰던 니체는 'Amor Fati'를 통해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물론 니체는 개인의 의지를 말했을 뿐, 사회적 노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에 응전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이 새로운 문화가 된다.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은 변화의 위에서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임관식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이던 2010년 6월 '다문화 사회, 이제는 거부할 수 없기에 적극 받아들여야'라는 글에서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곱씹어봐야 할 말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 현실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론 다문화 정책이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 10년이 증명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Pride and Prejudiced(오만과 편견) 리지와 다이시는 각각의 방법으로 상대에 대해 오만과 편견을 가졌다. 이러한 오만과 편견을 깨뜨린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이지만 '대화'였다. 리지와 다이시는 대화를 통한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은 상대의 진실을 보는 눈이 됐다. 개인의 방식을 사회적 방식으로 여과 없이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만과 편견을 깨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소통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다문화 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만과 편견을 깨뜨리려는 사회적 노력과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갖는 오만과 편견을 깨뜨리려는 노력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될 것 같길 바란다.

취재수첩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불공정 사례의 대명사처럼 들리는 이 말이 요즘 회자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채용, 임기제와 계약직, 위원회 구성, 위탁 공도, 일부 인사 등에서 후문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근무 평정과 관련해서도 이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근무 평정 등에서 특정인을 배려했다는 후문이 돌면서 다가오는 근

답정너와 불공정

무 평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곱씹어도 나오고 있다. 특정인을 배려하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마련이고 공정하지 못하면 공감을 얻지 못한다.

그로 인해 조직 안의 관계가 틀어지면 조직원들은 우리로부터 나를 보호하는데 쓸데 없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한다. 그 결과 조직은 약화된다.

이렇게 되면 공감보다는 불신이 앞서게 돼 질 낮은 서비스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된다. 그 반대로 조직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각자의 재능과 힘을 모아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맞부딪혀 나가는 응집력을 발휘한다.

우리들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공

감이 진실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다. 진실보다 공감이 우선한다. 공감은 사람들 간의 강력한 정서적 결합이 아닌가 생각한다.

직원들이 소속회사를 직접 평가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에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상강이 지나고 이제 입동이다. 절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덕목이 있다.

남에게는 불바람 같이 부드럽고 나에게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여 겸허함을 일깨우는 삶의 역리를... 기대는 배반되지 않았다는 말이 이후에는 회자될 것 같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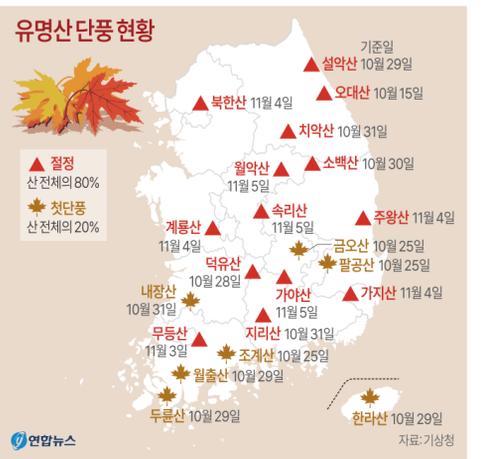
찬바람이 불면 몸보다 마음이 더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픽 뉴스

기후변화 만나 지각한 가을단풍...중부 '뒤늦은 절정' 남부 '시작'

올해 이례적인 늦더위에 가을 단풍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가을 한복판인 11월 초순에도 단풍이 물들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6일 기상청의 유명산 단풍 현황을 보면 전남 기준 21개 산 모두 단풍이 들었지만, 절정에 이른 산은 절반인 11곳에 불과하다.

기상청은 산 정상부터 시작해 산 전체의 20%에 단풍이 들면 해당 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표현한다. 절정은 산 80%에 단풍이 들었을 때를 말한다. 통상 중부지방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 사이', 남부지방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 사이'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 지금이런 남부지방에서도 단풍이 곧 절정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올해는 절정에 이른 산이 많지 않다.



단풍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내장산은 지난달 30일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됐다. 평년보다 11일 늦다. 예년의 경우 11월 4일 절정에 달하는데, 올해는 아직이다. 올해 단풍이 늦은 이유는 이례적인 늦더위다. 색이 달라도 단풍이 드는 이유는 '나뭇잎 내 염록소 분해' 때문이다. /한협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10 ·규토록 월 15,000원 1부 800원